

참신한 포맷과 콘텐츠 없이 배우 인지도에 기댄 예능



KBS 2TV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이동욱, 정해인 등 스타 배우들을 단독으로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배우 인지도로 초반 화제 물이에는 성공해도, 결국 참신한 포맷과 콘텐츠로 승부를 보지 못하면 시청자층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스타PD 나영석의 '삼시세끼', '꽃보다' 시리즈처럼 유명 배우 여러 명을 예능에 섭외하는 전략은 이미 구식이다. 이선균, 김남길 등을 내세운 tvN '시베리아 선발대' 등도 같은 전략이었다.

최근에는 좀 달라졌다. SBS TV '이동욱은 토르가 하고 싶어서'나 KBS 2TV '정해인의 걸어보고서'처럼 배우 한 명을 메인으로 내세운 예능이 속속 등장했다. 배우 간 팀워크가 아닌 배우 개인의 역량에 프로그램을 맡긴 셈이다.

이동욱은 과거 '강심장', '프로듀스 엑스(X) 101' 등 예능 MC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강심장'은 강호동이 메인 MC였고 '프듀X'는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어서 MC 역할이 한정됐다. 이번 프로그램

'이동욱은 토르가 하고 싶어서'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뻔한 연출·기존 예능 따라하기 ... 시청률 2~3% 그쳐

은 호스트의 역할이 절대적인 토크쇼 형태여서 배우에게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첫 게스트로 드라마 '도깨비'에서 '브로맨스'를 보여준 공유가, 두 번째로 등극지능을 이긴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등장해 화제성을 끌어올렸지만, 콘텐츠 자체만 놓고 본다면 냉정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다.

1회는 긴 시간을 공유의 등장과 그를 칭송하는 연출에만 의존했고, 2회는 나름대로 깊이 있는 토크를 지향했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서 시청률이 3%대로 하락했다. 오히려 보조 MC로 등장한 장도연이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끌었다는 평가마저 있었다. 3·4회 시청률도 큰 반동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역시 2%대 시

청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KBS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를 예능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정해인이 친구들과 외국을 걸어서 여행하고 기록하는 포맷이다.

교양 프로그램에 스타 배우를 더해 예능으로 변모한 기획 의도는 나름 신선했지만, 정작 내용은 기존 여행 관찰 예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게 문제다. '트래블러' 등 비지상파에서 이미 술하게 시도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출연자들 간 '케미' (케미스트리·조화)가 아직은 크게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자극의 흥수 속 잔잔함을 강조한다지만, 차별화 포인트로 보기엔 부족하다.

그렇다고 프로그램 흥행 부진을 배우들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전문가들 역시 배우 개인기보다는 프로그램 연출과



SBS TV '이동욱은 토르가 하고 싶어서'

포맷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2일 "포맷들이 다 예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오는 느낌이다. '토르가 하고 싶어서'는 정통 토크쇼에 잠깐씩 영상을 삽입한 정도고, 사실은 우리가 늘 봐온 1인 연예인 토크쇼다. '걸어보고서'도 형식적으로 새롭지 않고 새로운 주목 요소로 배우를 끌어들이는 건데 포맷이 강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배우들이 신선하기는 하지만 예능을 많이 해본 인물들이 아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며 "예능 프로젝트 촬영이 장기화하면서 배우 섭외가 늘었지만, 결국 형식은 과거 것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도 "요새 시청자들은 '간판 출연자'에 따라 시청하지 않는다. 유명 배우가 출연하면 화제성을 부르지만,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시청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결국 콘텐츠의 내실이 중요하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 미진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석희 JTBC 사장 '뉴스룸' 앵커 하차

후임 앵커에 서복현 기자

주말엔 한민용 단독 진행

손석희(사진) JTBC 대표이사 사장 겸 앵커가 자사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룸' 주중 앵커 자리에서 내려온다.

JTBC는 23일 "메인뉴스를 6년 4개월 동안 이끌어왔던 손 앵커가 앵커직에서 물러나 대표이사직만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앵커는 이날 오후 사내 회의에서 "다음 달 2일 신년 토론회까지만 진행하고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 앵커 빈 자리는 다음 달 6일부터 서복현 기자가 채운다. JTBC는 "서 기자는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주중 '뉴스룸'은 서복현 기자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투톱 체제로 운영한다"고 설



명했다. '뉴스룸' 주말 앵커는 한민용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주말앵커 김필규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준비근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앵커 세대교체, 여성 단독앵커 체제 등 새해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면모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뉴스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개편도 준비해오면서 기존 뉴스와 다른 흐름과 내용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손 앵커가 마지막으로 진행을 맡는 '신년 특집 대토론'에는 언론개혁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유시민, 진중권, 정준희, 전원철, 박형준 등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백지영 신곡 '다시는 사랑하지...' 차트 정상 석권

창모 '메테오'·다모임 '아마두'

차트 역주행도 화제

'발라드 여왕' 백지영 신곡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 (사진)가 다수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지난 22일 오후 6시 발매된 백지영 싱글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는 23일 오전 8시 기준 멜론, 지니, 소리바다, 벅스, 올레뮤직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플로에서는 3위에 올랐다.

정통 발라드인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는 스튜디오 오드리 '뮤직드라마 프로젝트'의 하나로 발매됐다.

이에 앞서 꾸준한 역주행 끝에 차트 정상에 차지한 두 합작곡도 화제가 됐다.

지난달 29일 발매된 래퍼 겸 프로듀서 창모의 첫 정규앨범 '보이후드' (BoyhooD) 타이틀곡 '메테오' (METEOR)가 22일 멜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염따, 답글로우, 팔로알토, 더라이엇, 사이먼 도미닉 등 1984년생 래퍼들의 모임인 다모임의 '합합 캐롤송'인 '아마두'는 지난 18일 멜론 1위에 올랐다. 이 곡은 이달 3일 발매됐다.

나이버 브이(V)라이브 힙합 예능 프로그램 '돌도 없는 힙합 친구: 다모임'을 통해 뭉친 이들은 차트 1위를 한다면 크리스마스이브에 명동에서 공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생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지도의 뒷면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kbc 특별모금생방송 2019 희망 풍차 나눔 FEST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TV는 사랑을 싣고(재)			
[3]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빠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빠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나쁜사랑(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썬! 내 친구는 빅파아브 30 영상앨범 산(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KBC특집다큐 불어라 희망풍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미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성탄특집 코미디의 전당	55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10]	00 성탄특집 걸레성자 손정도	00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00 VIP
[11]	40 바다 건너 사랑	2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	10 PD수첩	2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걸작 다큐멘터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중계식 서울국제음악제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 1	0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가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땡땡땡 유치원 08:30 애코와 친구들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스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건축탐구 - 집 13:00 성탄특선영화-나 홀로 집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5:10 로보가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엄마 까투리(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25 페파 피그(재) 16:40 땡땡땡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17:30 애코와 친구들(재) 17:45 마샤와 곰(재) 18:00 꾸러기 천사들	18:3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9:00 스파이더맨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오션탐험대 20:30 아기 동물 귀여워(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숨겨진 세계 리플랜드 -진짜 힐링, 포시오 라이프 21:30 한국기행 -고택에서 하룻밤 2부 안동, 명기를 찾아서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지식채널e 22:50 성탄특선영화-벤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4일 (음 11월 28일 乙未) ☎010-9790-8237		
 子	36년생 반복하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 변화를 도모해 보자. 48년생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 볼 필요가 있다. 60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의외의 이익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 84년생 더딜수록 더욱 더 완벽해질 것이다. 96년생 일반적이지 못하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하찮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97, 94	30년생 집중할 필요가 있다. 42년생 겉으로는 그럴싸해도 속으로는 별 것이 없다. 54년생 수고로움이 미래를 보장하게 되리니 마땅히 감수함이 능률적이다. 66년생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78년생 경시할 때에는 역을 당하게 되어 있다. 90년생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성가시게 한다. 행운의 숫자 : 54, 36
 丑	37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49년생 기존의 정황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변경된다. 61년생 무탈할 것이 없이 안심하고 일해도 된다. 73년생 진중하지 않으면 손재수가 생길 것이다. 85년생 앞당기어 벌어질 수 있으니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97년생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걱정하지 말고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06, 12	31년생 상대가 소극적이라면 굳이 강권할 필요가 없다. 43년생 하자가 있던 것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55년생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속이라도 편하리라. 67년생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야 할 때다. 79년생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91년생 모순은 철저히 배제하자. 행운의 숫자 : 47, 60
 寅	38년생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본다. 50년생 똑같은 상황이 반복 될 수도 있느니라. 62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을 기우는 일이 터지겠다. 74년생 심오하고 미묘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입지에 놓인다. 86년생 꽃밭석에 앉아서 호강하겠다. 98년생 희망찬 기운의 진행이 계속되는 운로이므로 개의치 말고 임하자. 행운의 숫자 : 07, 96	32년생 허심탄화한 심경의 토로가 절실하다. 44년생 중대사와 연결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56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68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80년생 폭 넓은 시야가 발전적인 단계로 이끈다. 92년생 내실을 기했을 때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3, 11
 卯	39년생 예견된다면 확실히 회피하는 것이 좋다. 51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자. 63년생 위상을 탈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75년생 기꺼이 수렴하는 것이 백 번 낫다. 87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99년생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92, 34	33년생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다. 45년생 단일하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7년생 행운을 부르는 서풍이 비친다. 69년생 사실로 확인 되었을 때는 이미 늦으니 예견된 후에 대처하라. 81년생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리라. 93년생 천우신조로써 대결하는 운세이다. 행운의 숫자 : 76, 02
 辰	40년생 숨은 기쁨이 코도다. 52년생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여야 대치가 가능하다. 64년생 적절한 융통성은 윤활유 역할을 하리라. 76년생 지나치다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88년생 요령 있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00년생 하나씩 진전을 보이겠고 길사가 발생하면서 행운이 깃든다. 행운의 숫자 : 63, 87	34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도 괜찮다. 46년생 한 번 정해진다면 계속 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58년생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70년생 지나놓고 보면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82년생 곧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말라. 94년생 어설피게 하느니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62, 78
 巳	41년생 쌓아 놓은 공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다. 53년생 함께 한다면 발전적인 힘이 생긴다. 65년생 차제에 취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기만 쉽지 않을 것이다. 77년생 확고부동한 자기 확신이 수반 되어야 한다. 89년생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01년생 수효와는 전연 무관하니 소신을 갖고 일관성을 견지함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3, 51	35년생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47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낫다. 59년생 가까운 이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다. 71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걱정할 일은 아니다. 83년생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니 기탄없이 진행하자. 95년생 예상 밖의 판국이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0, 16